

코로나가 부른 소통 부재... '상담 예능' 뜬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금쪽같은 내 새끼' '애로부부' 등 다양한 주제로 '사회적 갈등' 해소... 제작 가성비도 좋아

연애, 부부 관계, 육아, 재테크, 심지어 집 정리 까지. 매일 고민은 넘치지만 소통하기 어려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 '상담 예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시청자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도 제시해주는 포맷은 기존에도 예능가에서 어엿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최근 더 주목받는 분위기다.

현존 채널 중 상담 예능은 10개에 이른다. 주제도 다양한데, KBS조이(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나 E채널 '어머머 웬일이니'처럼 상담 내용이 다양한 경우도 있지만 세부 장르를 특화한 사례가 더 많다.

대표적으로 SBS TV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요식업에 한 획을 그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골목식당 사장들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례 없던 포맷으로 장수하고 있

다.

'육아의 신' 오은영 박사를 내세운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도 육아 상담 포맷으로 부모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채널A-SKY의 '애로부부'는 성생활 등 부부들의 사적인 고민을 가감 없이 공유하는 토크쇼로 주목받았고, tvN '신박한 정리'는 코로나19로 집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집 정리 상담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재무 상담을 해주는 원스(ONCE)의 '유불리 상담소', 부부부터 고부 갈등까지 여자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SBS플러스 '언니한테 말해도 돼', 연예 상담을 해주는 KBS조이 '연애의 참견' 등이 방송 중이다.

상담 예능은 본래 교양정보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라마보다 극적이면서 '실제'이기 때문에 사연에 몰입하기도 공감

하기에도 좋아 결국 토크쇼를 붙인 예능 장르로 자리 잡았다.

사회 구조적으로 소통의 부재가 상담 예능의 흥행을 불렀다는 분석도 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4일 "과거 성(性) 이야기를 꺼낸 '마녀사냥'이 흥행했던 것도 성 담론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환경은 안 되지만 성적인 콘텐츠는 난무하는 사회의 이중적 구조 속에서 욕구가 폭발한 것"이라며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이 단절되니 상담 예능으로 내 사연과 매칭해보면서 소통의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방송사 입장에서 '조작' 위험만 잘 차단하면 사례가 무궁무진하고 '가성비'가 좋으니 특히 비정상파에서 그러한 사회적 갈등이나 흐름을 잘 빠르게 읽어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담 예능은 일종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관됐다고 본다. 건강한 담론장이 생기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무엇이든 물어보살'



'금쪽같은 내 새끼'

거침없이 몰아치는 MC 4명의 말재간... '티키타카' 3.9% 출발

전문가들의 범죄 토크 '알쓸범잡' 첫 방송 시청률 2.6%

탁재훈, 김구라, 음문석, 규현까지. '말재간' 하면 지지 않는 네 명의 MC가 모친 SBS TV '티키타카'가 3%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5분 방송된 '티키타카' 첫 회 시청률은 3.9%~3.0%를 기록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SBS TV 새 드라마 '모범택시'의 주인공인 배우 이제훈과 이솝, 개그우먼 홍현희와 방송인 재재가 게스트로 출연해 버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추억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특유의 재치로 각자의 분야에서 사랑받고 있는 네 명의 MC가 함께해 기대를 모았던 '티키타카'

는 탁재훈과 김구라의 활약이 돋보였지만 음문석과 규현은 아직 녹아들지 못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전날 첫 방송을 시작한 tvN '알쓸범잡'은 2.6%(비지상파 유료가구)의 시청률로 출발했다.

1회에서는 김길태 살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마약 관련 이야기 등 첫 번째 사건의 부선과 관련된 범죄 이야기가 펼쳐졌다.

'알쓸범잡'은 시청자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주며 인기를 얻었던 '알쓸신잡'의 콘셉트를 이어가면서도 최근 드라마와 시사교양 등 다양한 방송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강력범죄라는 소재를 더 해 이



'1호가 될 순 없어'는 3.831%(비지상파 유료가구)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목을 끌었다. 또 삼십년지기 친구인 윤종신과 장항준 감독의 진행에서 나오는 유쾌한 호흡 또한 재미를 더했다.

동시간대 방송한 MBC TV '구해줘 홈즈'는 3.7%~4.3%, JTBC

윤여정, 미국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아카데미 기대감 ↑

한국인 최초 개인 배우상 '미리 보는 오스카'로 평가받아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사진)이 4일(현지시간) 미국배우조합상(SAG)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윤여정은 이날 열린 제27회 미국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영화 부문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미국배우조합상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출연진 전체가 아시아 영화로는 처음으로 영화 부문 앙상블상을 받은 바 있다. 앙상블상은 출연 배우들 간의 연기 호흡과 조화를 평가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 배우가 이런 앙상블상이 아닌 배우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은 것은 윤여정이 처음이다.

윤여정은 수상 소감에서 "서양인(western)에게 인정받은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특히 동료 배우들이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선택돼줘서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쁘고 행복하다"며 여우조연상 후보로 경합한 다른 후보들에게 감사하

표했다.

윤여정은 영화 부문 여우조연상에서 마리아 바칼로바(보랏2), 글렌 클로스(힐빌리의 노래), 올리비아 콜먼(더 파더), 헬레나 쟁겔(뉴스 오브 더 월드)과 수상을 놓고 다투었다.

미국배우조합이 주최하는 이 상의 수상자들은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영예인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쥐는 경우가 많아 '미리 보는 오스카'로도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윤여정은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할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다. /연합뉴스

BTS '봄날' 뮤직비디오, 4억뷰 돌파...공개 4년만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표 인기곡으로 꼽히는 '봄날' 뮤직비디오가 공개 4년여 만에 유튜브 4억 뷰를 돌파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봄날' 뮤직비디오는 5일 밤 12시 37분께 유튜브 조회 수 4억 건을 넘었다.

'봄날'은 2017년 2월 발표된 '윙스 외전: 유네버 워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 앨범 타이틀곡이다.

멤버 RM과 슈가의 경험담을 녹인 가사와 아련한 멜로디가 특징으로, 팬들로부터 가장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곡으로 꼽히고 음원 차트에서도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설원을 배경으로 일곱 멤버의 감정 연기와 서정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짙은 연출, 다양한 메타포가 담긴 뮤직비디오도 사랑받았다.

'봄날'은 방탄소년단의 통산 11번째 4억 뷰 뮤직비디오다. 이들은 12억뷰의 'DNA'를 비롯해 총 31편의 억단위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